

GCF와 아프리카금융공사(AFC), 아프리카의 저배출 발전 추진

2017.10.24., 송도 - 녹색기후기금(GCF)이 오늘 아프리카금융공사(AFC)와 협약 체결을 체결하며 아프리카 국가가 기후변화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돕게 되었다.

양 기관은 GCF 인증기구가 GCF 승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인증기본협약(AMA)에 서명했다. AFC는 2015년 7월 GCF 이행기구로 인증되었다.

AFC는 GCF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전력, 교통, 중공업, 통신 4대 분야의 저탄소배출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상업용으로는 처음으로 짓는 민관합동 풍력 발전소 사업에서 선도투자자(lead investor) 역할을 했던 경험도 있다. 26MW 풍력 발전소를 짓는 카베올리카 사업(사업규모 9천만 달러)은 카보베르데 공화국 전력 수요의 20%이상을 제공한다.

AFC 최고투자담당관은 AMA 체결식에서 기후변화는 아프리카 경제 발전 성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AFC는 GCF와의 파트너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AFC와 GCF는 공동의 목표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가치도 같다”라고 말했다.

파 오스만 잘주 GCF 국가프로그래밍국 국장은 아프리카 기업이 글로벌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아프리카의 무한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AFC가 조력자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봤다.

“GCF는 기후재정의 국가 주인의식 원칙을 통해 개도국의 우선순위에 맞춰 활동을 기획한다. 예를 들어, 언젠가는 아프리카 기업이 지역사회와 산업에 필요한 바이오매 에너지 생산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본을 투입한다.”

AFC는 아프리카 주요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관리도 하고 있다. 28개국의 전력, 통신, 교통, 물류, 천연자원, 중공업 등 다양한 분야 사업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해 왔다.

[번역] GCF and Africa Finance Corporation drive low-emission development in Africa

africa?inheritRedirect=true&redirect=%2Fwhat-we-do%2Fnewsroom%2Fnews-stories%3Fp_p_id%3D101_INSTANCE_tLw79zWwerZZ%26p_p_lifecycle%3D0%26p_p_state%3Dnormal%26p_p_mode%3Dview%26p_p_col_id%3Dcolumn-2%26p_p_col_count%3D1%26_101_INSTANCE_tLw79zWwerZZ_delta%3D30%26_101_INSTANCE_tLw79zWwerZZ_keywords%3D%26_101_INSTANCE_tLw79zWwerZZ_advancedSearch%3Dfalse%26_101_INSTANCE_tLw79zWwerZZ_andOperator%3Dtrue%26p_r_p_564233524_resetCur%3Dfalse%26_101_INSTANCE_tLw79zWwerZZ_cur%3D2